

SK케미칼, 북한 어린이 돕기 행사

SK케미칼(대표 김창근)은 북한 어린이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마련행사인 <블루&그린리본>을 후원키로 했다고 6월26일 발표했다.

국제백신연구소와 문화복지공동체인 사단법인 푸른나무가 주최한 <블루&그린리본>은 국제백신연구소 크리스티앙 루끄(Christian Loucq) 사무총장, 푸른나무 곽수광 이사장, 한완상 전 부총리, 그룹 지누션의 셴, 가수 윤복희, SK케미칼 이인석 대표이사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.

크리스티앙 루끄 사무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“한국기업과 개인의 기부·지원을 통해 북한 어린이들의 건강과 복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”고 말했다.

국제백신연구소는 푸른나무와 손잡고 2007년부터 통일부의 지원을 받아 북한 어린이들의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질환인 일본뇌염과 뇌수막염 예방을 위해 백신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.

이인석 대표는 “백신사업의 첫 단추를 꿰 것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착한 비즈니스라고 판단하고 있다”며 “도움이 필요한 북한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일도 우리가 추구하는 사업과 일맥상통한다”고 소감을 밝혔다.

<화학저널 2012/06/26>